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재열



수학의 계절 가을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축제 종류도 특산물에서부터 지역문화와 역사 등 다양하다.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체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지역축제는 1천100여개로 관선시절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축제공화국'으로 인정받는 축제가 생겨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울돌목 일대에서 열린 명령대첩축제는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는 찾아볼 수 없었다. 411년 전 명령대첩 당시 이를 없는 호남인들이 승리에 기여했던 것처럼 민족들이 축제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다.

지역축제 '성과주의' 족쇄를 풀자

그러나 일부 축제는 여전히 해당 자체와 상인들이 주도할 뿐 주민들은 뒷전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적은데다 '먹고 마시고 놀자' 편으로 전락한 경우도 적지 않다. 각종 미안선발대회와 연예인 초청 노래자랑 등도 악방의 감초 격으로 지역축제 단골 메뉴다.

특히 지역축제 실적을 부풀려 단체장치적으로 연결시키는 행태는 아직도 여전하다. 상당부분 시정됐으나 관객 통계

의 거품 역시 빠지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축제로 손꼽히는 강진 청자문화제가 관람객 거품빼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부터다. 차량 1대당 5명을 곱하던 종전 계산방식에서 탈피, 계수요원을 배치해 관람객 수를 일일이 해야 했다. 그 결과 매년 200만명선으로 발표됐던 청자문화제 관람객수는 100만명 이상 거품이 빠졌다. 반면에 청자문화제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졌다.

축제로 인한 경제적 과급효과 역시 지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와는 거리가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축제 때마다 매년

마나 왔고 이들이 뿐이고 간 돈은 얼마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연히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동질성을 확인해 주는 의미 깊은 축제로 승화시키는 데 인색할 수밖에 없다.

정진한 축제 의미 되살려야

지역주민과 유리되지 않고 일종의 세시풍속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지역문화축제가 진정한 지역축제다. 관람객 유치 목표부터 정하고 경제적 과급효과로부터 따지는 역순환의 축제관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축제는 말 그대로 '축(祝)과 제(祭)'가 혼합된 문화현상이다. 농경사회에서 한해의 풍요를 하늘에 감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어울려 신령에게 즐기는 것이 축제였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동네축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산보다는 필요한 무대와 장비를 지원하고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는 간접 지원방식이 바람직하다. 동네축제 가운데 '필성부른 축제'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육성하는 것은 자체체와 지역 주민들의 몫이다.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온펜칼럼

박홍근



도시화의 거센 바람은 사람들을 도시에 집중시켰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도시에 살고 있다. 도시화는 인간에게 편리함은 주었지만 동시에 스트레스를 가하며 무관심의 인간관계를 만들었다.

도시문제는 일반적 논의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 하나 하나를 종합해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일부 전문가나 행정당국의 문제라고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의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

'마을'은 사람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이다. 각각의 전문성과 관점

첫째, 광장을 만드는 것이다. 넓은 장소만이 아닌 가로변의 자투리 공간, 건물과 간물 사이, 모퉁이의 버려진 공간들을 잘 활용하여 쉼터, 꽃밭 가꾸기, 나무심기 등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세우는 행위를 느끼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담장과 용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담장은 적을 수록, 낮을 수록 아름답다. 벽을 허물고 이웃끼리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조경을 통한 녹색 벽, 디자인으로 잘 다듬어진 그런 벽을 만들자. 걷다가 잠깐 시선을 멈출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다.

‘마을’은 사람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이다. 각각의 전문성과 관점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에 따라 범위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최소한 자신의 '마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거대도시 안에서 하나의 주거지역이나 학군, 단지일 수도 있다. 혹은 신도시, 일반 행정구역, 대도시의 행정구역일 수도 있다. 또한 중소도시나 농촌의 집단촌락일 수도 있다. 그 어느 것인든 '마을'이란 시민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의 장이다. 그러한 '마을'을 시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도시 삶에서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시작이다.

'마을 만들기'란 물론 '마을'을 '만드는' 일이다. 한미디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유지하며 편리하고 보다 인간답게 생활해 가기 위해 공동의 장을 만들자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 공동의 장을 잘 만드는 것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건축사·2004년 12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행상'을 수여 합니다. 은행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정병길



최근 중국발 멜라민 파동으로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미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멜라민은 옆에 강한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에 사용되는 유기화학물질이다. 이것을 우리 식생활과 가장 밀접한 우유에 첨가함으로써 이를 원료로 만드는 분유나 과자류 아이스크림 등과 같은 먹을거리에 오염이 된 것이다.

이번 중국에서 분유에 멜라민을 첨가한 이유를 보면 제품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 우유에 물을 섞어 희석시켜 여기에 질소성분인 멜라민을 첨가해 단백질 함량을 높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서였다고 한다. 특히 이번 파동의 진원지인 중국에서는 멜라민이 첨가된 분유

이번 파동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의 식생활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전문조사 기관인 '엘브레인'이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가 멜라민과 동시에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또한 60%는 커피프리미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이후 커피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대체재 역할을 하는 유자차, 대추차, 녹차와 같은 국산차와 과자 대신에 감, 사과, 배와 같은 과일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용답했으며, 또한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국산 야채와 촉촉한 소비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난 우리 농산물이

멜라민 파동과 우리 농산물 애용

를 먹은 영·유아들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멜라민 파동은 거대 식품기업들이 제품생산 비용을 낮추기 위해 국내·외에 아웃소싱을 하는 가운데 유해성을 담보로 한 저렴한 원료들이 제품의 단계 생산과정에 투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복잡한 상품의 가치 사슬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의 투입과

이전의 경로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아울러 이번 멜라민 파동은 계기로 우리 농업인도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자제한 안전성이 보장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쏟음으로써 현재의 농촌 위기가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 또한 벌레가 먹고 뜯어진 농산물을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습관이 적극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것 그 자체가 농촌을 지키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협조도 요청된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며 “조금만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 돈풀을 죄고 있는 금융권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라디오 연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진술하게 경제상황을 설명한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 내용도 없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가 라디오 연설의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

다고 하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노변담화(Fireside Chat)’로 불리는

라디오 연설은 4선 대통령이라는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화를 만든 루스벨트

나가겠다는 것을 고집하지 말았으면 한다.

반대여론이 높은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라디오 연설은 정례화한다면

이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달래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예기

로 희망을 심어주길 바란다. 신뢰는 진정한 소통에서 쌓을 수 있다.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시설

‘빚더미’ 자치단체 예산 낭비부터 막아라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무상태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에서 이 지역 자치체들은 부채가 너무 많고 자체 조달 수익이 전국 최하위에 그칠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선 지방자치 20년이 되도록 재정부실이라는 고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나타난 일부 지자체의 재무상태는 민간기업이라면 부도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신안군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감당도 어려운 시·군들이 과도하게 빚을 낸 경우가 수두룩했다.

광역단체의 재정도 비슷하다. 광주시의 총부채는 1조2천41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95%에 달했다. 전국 평균 3.6%로 2배가 웃돌며 16개 시·군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주민 1인당 부채도 87만8천원으로 3위였다. 전남도는 자체수익이 총수익의 14.1%에 그쳐 재원조달을 낮아지게 정부에 의존하는 것으

영산강 수질 ‘전국 최악’ 방치할 건가

이 5천900만m³에 달하고 있다니 오염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영산강의 수질은 4~5급수다. 공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 자체단체들이 수질개선을 위해 해마다 수백억원씩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오염이 더 이상 방지할 수 없을 만큼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영산강을 살펴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이 썩어가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일이다. 퇴적물을 준설하고 주변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수질을 개선하고 영산강 본연의 치수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영산강 맹길복원 사업은 적극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친환경개발 등 방법론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영산강 하류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른 흙없는 일이다. 퇴적물을 준설하고 주변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수질을 개선하고 영산강 본연의 치수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

영산강 하류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른 흙없는 일이다. 퇴적물을 준설하고 주변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수질을 개선하고 영산강 본연의 치수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경지 등의 오염수들이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영산강 하류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른 흙없는 일이다. 퇴적물을 준설하고 주변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수질을 개선하고 영산강 본연의 치수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경지 등의 오염수들이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영산강 하류는 죽어 있는 것이나 다른 흙없는 일이다. 퇴적물을 준설하고 주변 오염원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야 수질을 개선하고 영산강 본연의 치수기능도 회복할 수 있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경지 등의 오염수들이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경지 등의 오염수들이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경지 등의 오염수들이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경지 등의 오염수들이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경지 등의 오염수들이 하천에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태다.

영산강은 기본적으로 오염에 취약하다. 유역면적이 좁아 하천 유량이 한강의 1/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담당, 나주, 장성 등 4대 농업용수단이 완공되면서 갈수기에는 유량이 절대 부족하다. 광주와 담양 등 상류지역의 생활용수와 영산강 유역 농